

## 바다와 예술이 있는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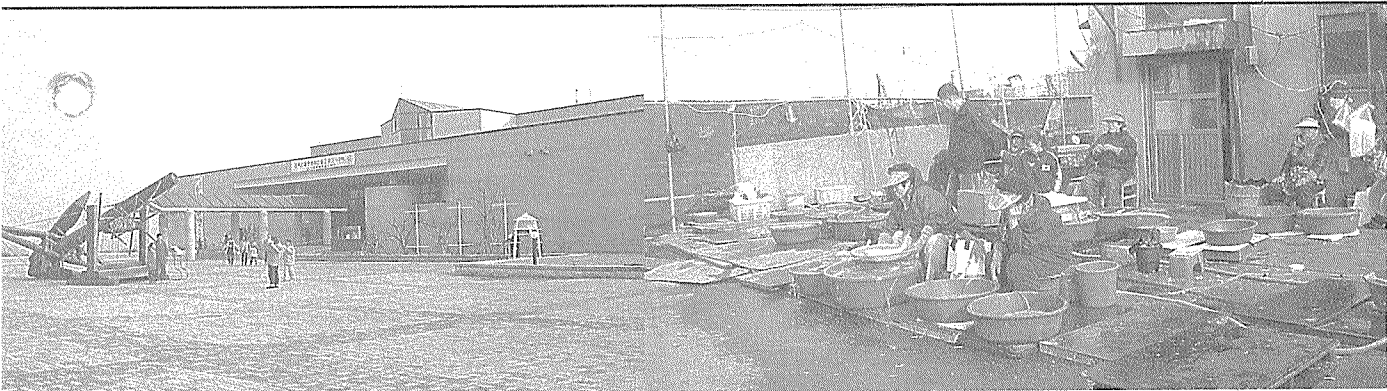
글 사진 김 맑음 | 여행작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남도의 끝, 목포. 서울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로 그것도 아니면 승용차로 끈게 뺀 고속도로를 달려 4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목포는 이제 더 이상 멀게만 느껴졌던 낯선 도시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다녀올 수 있는 일일생활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8백40개)을 거느린 항구,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무안반도 남단에 이르러 마지막 용솨음을 친 곳,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의 눈물’ 이 그리움이 되어 흐르는 곳. 목포는 이렇게 우리들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목포의 얼굴이랄 수 있는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한 봉우리로 시내(목포시 죽교동) 한쪽에 우뚝 솟아 있다. 등산복 차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볍게 오를 수 있는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 모양은 아! 하는 감탄사를 내뱉게 한다. 잘 꾸며진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목포 시가지와 가없이 펼쳐진 다도해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특히 저물녘 다도해로 스러지는 일몰이 장관이고 목포항의 야경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화다. 유달산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사이의 능선에는 ‘보리마당’ 이라는 터가 남아 있는데, 옛날 이 주변이 보리밭이어서 이 곳에 와서 보리타작을 하게 되어 보리마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유달산은 예로부터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 이란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그 모양이 신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목포 어시장

선이 춤을 추는 듯해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유달산 일등바위에서 심판을 받은 뒤, 일단 혼령이 이등바위로 옮겨져 대기하고 있다가 저승 길에서 극락 세계로 가는 영혼은 3마리의 학(삼학도를 나타냄)이나 고하도 용머리의 용에 실려 떠나고, 용궁으로 가는 영혼은 거북섬(목포와 압해도 사이에 있는 섬)에 가서, 거북이 등에 실려 용궁으로 떠난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전설을 간직한 유달산에는 대학루, 달성각, 유선각 같은 정자와 산 아래에는 4.19 기념탑과 충혼탑, 가수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기념비가 서 있고, 그 옛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봉수를 올렸던 봉수대와 임진왜란 때 이영으로 바위를 덮어 아군의 군량미처럼 가장해 왜군을 물러가게 했다는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전해오는 노적봉을 비롯하여 산 중턱에 조성된 조각공원과 난공원은 유달산을 찾는 사람들이 꼭 둘러보는 명소이다.

난공원에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춘란, 풍란 따위의 한국난과 동양난 양난 등이 전시되어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을 뽐내고 있으며 배양 재배에 성공한 각종 난을 저렴한 가격에 육종 분양하고 있어 난 애호가들은 물론 유달산을 찾은 이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산을 에둘러 난 일주도로는 목포시내와 다도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개나리꽃이 피는 3월에는 '유달산개나리꽃 축제'가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펼쳐진다. 등산코스 ▶유달공원 입구 - 달성각 - 유선각 - 마당바위 - 일등바위(2km, 40분 소요), 유달공원 입구 - 소요정 - 이등바위(1km, 20분 소요).

유달산을 내려와 갯내음 물씬한 선창으로 간다. 유달산이 뻗어 올라다보이는 해안도로를 얼마쯤 달렸을까. 절편한 삶의 현상이 펼쳐진다. 선창에서 생선을 피는 아낙네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왁자지껄하다. 목포의 명물인 세발낙지는 물론 병어, 준치, 가오리, 조기새끼, 꽃게, 문어 등등 큼직한 함지박에 살아 꿈틀거리는 생선이 그득하다.

건어물 상가가 밀집한 해안도로를 따라 빙 돌면 삼학도(三鶴島)다.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존재다.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다. 지금은 제방을 쌓아 육지가 되어 섬 북단에 있는 갯바위 일대는 과수원이 많은 녹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섬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6·25 직후인 1954년의 일이다. 목포항이 비좁고 대형선박의 정박이 어려웠기 때문에 10,000톤급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 공사를 착수해 그로부터 3년만에 삼학도는 육지가 됐다.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하는 삼학도를 나와 해안일주도로를 내쳐 달리면 영산강 하구언과 대불공업단지(영암군 삼호면 소재)가 바라보이는 목포시 용호동. 이른바 갯바위 문화벨트권이다. 이곳엔 국립해양박물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 남농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윤림산방의 3대



유달산 등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8백40개)을 거느린 항구,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무안반도 남단에 이르러 마지막 용솟음을 친 곳,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의 눈물'이 그리움이 되어 흐르는 곳.  
목포는 이렇게 우리들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주인인 남농 허건 화백의 자취를 볼 수 있는 남농기념관으로 가보자. 이 미술관에는 조선말엽 시·서·화로 이름을 날렸던 추사 김정희가 '해동 제일'이라고 극찬했던 소치 허련의 작품을 비롯하여 아들 미산, 손자 남농으로 이어지는 허씨 일가 4대의 작품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으며 가야와 신라, 조선시대의 토기 도자기도 볼 수 있는 목포의 명소이다.

남농기념관 맞은편에는 우리의 오랜 해양 역사 흔적을 보존, 전시해 놓은 국립해양박물관(<http://www.seamuse.go.kr>)이 있다. 신안과 완도 앞 바다에서 발굴 인양된 선박과 도자기, 동전, 총포 등이 전시돼 있어 오래 전부터 목포가 해상무역의 통로였음을 말해준다. 완도선실, 신안선실, 해양유물실, 선박사실, 기획전시실 등 5개의 전시실과 해저 인양유물 100여 점, 모형 및 복제유물 100여 점과 새우잡이배, 관광여객선(폐선), 가거도 멸치잡이배, 제주도 때배를 복원, 전시하고 있으며 바다와 접한 면은 투명유리로 돼 있어 마치 잔잔한 바다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갯바위(笠岩)는 목포 팔경의 하나로 두 사람이 나란히 삿갓을 쓰고 서 있는 형상이다. 큰 바위는 '아버지바위' 이고 작은 바위는 '아들바위'라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경지 높은 도사스님이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뭇도 닭섬으로 가던 길에 잠시 쉬면서 삿갓과 지팡이를 놓았던 자리에 이 갯바위가 생겨났다고 한다. 갯바위가 있는 입암산에 오르면 해송 사이로 목포 시가지와 유달산, 삼학도가 바라보여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준다.

유달산 아래 해양대학교 앞에서 시작된 해안도로는 목포시와 영암군의 경계선인 영산강 하구둑까지 이어진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 강의 하나로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등 지류를 합쳐 장장 3백리 호남벌을 관류한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목포를 찾는 외지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목포시는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미항(美港)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미항 목포 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압해대교 ~ 북항 ~ 대반동 ~ 내항 ~ 삼학도 ~ 갯바위 문화공원 ~ 평화광장 ~ 영산호 하구둑'에 이르는 곳을 해변 친수(親水) 공간으로 정비·개발하고, 비좁은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에는 내년까지 경전철을 시설할 계획이다.

**여행메모** (지역번호 061) 목포까지는 항공, 열차, 버스, 선박 등 다양한 교통편이 있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영암, 진도 등지에서 버스가 수시로 출발한다. 서울, 부산, 광주, 여수에서 떠나는 열차편과 서울, 제주, 부산간 항공편도 있다. 목포에서 제주, 홍도, 하의도까지 선박편도 운항한다. 목포시내에 신안비치호텔(243-3399), 초원관광호텔(243-0055), 백제관광호텔(242-4411) 등 묵을 곳이 많다. 목포는 맛의 고장으로 세발낙지는 특히 유명하다. 선창가에 호산회관(278-0050), 독천식당(242-6528), 금메달식당(홍어요리 전문 272-2697) 등이 있다. 문의 목포공항(464-0086), 목포역(242-7788), 버스터미널(276-1400), 동양고속웨리(243-2111), 목포시 관광진흥계(276-8582).